

복음통일을 위한 주간 기도 자료 Vol. 9

도덕적 관점에서 관계적 관점으로

‘관계적 관점’이란 원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서, 상대방의 도덕적 행실을 따지기보다 관계와 사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 관련 정세 이야기

올해 초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칭하며 동족(민족)도 아니고 통일의 대상도 아닌 교전 국가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두 국가론이기보다 남한을 섬멸해서 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됩니다.

한편 4월 2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의 공장들이 러시아 군수품 생산을 위해 가동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미 1만 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러시아에 전달되었으며, 이는 포탄 100만 발을 훨씬 넘는 양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군에 따르면, 북한군이 남북을 잇는 모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 내 전술도로에 지뢰를 매설하였고, 지난 1월부터는 2004년부터 남북을 연결하던 경의선 도로와 2005년에 개통한 동해선 도로,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등 남북 간에 연결된 3개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였습니다.

오늘날 북한은 남한을 이제는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간주하며 섬멸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매설하면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다수의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북한의 언동에 대하여 참담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한민족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70여 년의 분단을 통하여 남북한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듯 적대감이 팽배한 긴장 속에서 남북한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제는 서로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제목

하나님 아버지,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향한 신뢰가 무너진 지 너무 오래되었고, 그 불신의 골이 너무 가파르고 깊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너무나 큰 허물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북한 사람을 동포로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흠이 많은 탕자를 두 팔로 끌어안은 아버지처럼 우리도 흠이 많지만 먼저

북한 동포를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여, 이 한반도를 공활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통일선교기관의 특별기도 제목

- 1) 탈북청년들이 '예수제자' 일대일 양육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 2) 장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의 양육을 통해 신앙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 선교사로 세워지게 하소서.
- 3) 중국과 한국에 있는 어려운 탈북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나눔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 4) 중국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탈북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한민국으로 안전하게 구출하게 하소서.

말씀 나눔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32절

- ¹¹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¹²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¹³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¹⁴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¹⁵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¹⁶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¹⁷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¹⁸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¹⁹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²⁰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²¹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²²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²³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²⁴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하더라

²⁵만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²⁶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²⁷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²⁸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²⁹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³⁰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³¹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³²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잃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과 ‘기뻐하지 않는 형’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묘사됩니다(약 1:17; 히 12:9). 아버지는 집을 떠나 방탕했던 아들이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를 사랑으로 다시 품는 부성애를 보여줍니다(20, 24절).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을 때 자신을 향해 저지른 도덕적 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사는 삶을 선망했던 잘못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과거의 도덕적 잘못을 해결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본문의 후반부는 큰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 나라에서 돌아온 작은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터인 밭에서 집으로 돌아온 큰아들이 나타납니다. 큰아들은 작은아들에 대한 잔치 소식을 듣고 버럭 화를 내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28절). 그는 아버지를 향한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지켰다고 항의합니다. 여기서 ‘어김’은 ‘빠트리다’ 혹은 ‘범하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동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도덕적 우위에 서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에게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30절) 망나니일 뿐입니다. 사실 본문은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허비한 것(13절)으로 묘사할 뿐 창녀들과 돈을 날려버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동생을 “당신의 아들”(30절)로 칭합니다. 그에게 동생은 자신의 가족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작은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와 큰아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도덕적 흠을 따지기 전에 먼저 관계를 회복합니다. 반면 큰아들은 동생의 잘못을 확대함으로써 자신의 도덕적 우위를 내세우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흠이 많은 이웃을 마주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적 관점을 제 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는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을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신뢰가 깨진 채 수많은 허물이 쌓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큰아들과 같이 자신의 도덕적 우위를 드러내며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관계적 관점’으로 복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이 우리의 동포이자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적 관점

신학자 미로슬로브 볼프(Miroslav Volf)는 이웃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탕자의 비유(눅15:11-32)를 기반으로 다룹니다.¹⁾ 여기서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관점과 큰아들의 관점이 비교됩니다. 탕자는 작은아들(the younger son)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departure)은 단순한 분리 행위(the act of separation)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킨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그들의 원수로 만드는 배제 행위(the act of exclusion)입니다.²⁾

볼프는, 아버지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원수가 된 탕자와의 관계를 놓아 버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³⁾ 우리의 관계는 도덕적 공적에 기초해 있지 않으며, 이 관계는 비도덕적 행위에 의해 파괴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⁴⁾ 이러한 아버지의 관점은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볼프에 의하면,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아들’(son-not-worthy-to-be-called-a-son)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son-he-could-be proud-of)로 재창조(remaking)합니다. 즉 탕자를 품에 안으며 ‘내 아들’(my son)이라고 부릅니다(renaming). 볼프는 작은아들을 변화시키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 용납은 탕자를 변화시킵니다.⁵⁾ 아버지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작은아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볼프는 아버지가 작은아들의 행동에 담긴 도덕적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관계적 범주(relational categories)를 사용해 ‘잃어버린/찾은’, ‘(그에게)살아 있는/(그에게)죽은’이라는 축(the axis of “lost/found” and “alive(to him)/dead(to him)”)에 따라 작은아들의 떠남을 해석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관계가 도덕적 규칙보다 우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공적(moral performance)은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관계는 도덕적 공적에 기초하지 않습니다.⁶⁾

한편 큰아들(the old brother)의 관점에서 볼 때, 돌아온 탕자는 더 이상 자신의 동생이 아닙니다. 그는 돌아온 동생을 외면하고 잔치에도 가지 않습니다. 볼프는 이러한 공간적 거리두기가 내적 배제의 외적 신호라고 해석합니다. 그에게 동생은 “당신(아버지)의 아들”(this son of yours)일 뿐입니다.⁸⁾ 그는 죄를 범한 동생을 받아들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정하기를 거부합니다.⁹⁾ 큰아들은 ‘관계의 범주’가 아닌 ‘도덕적 범

1) 미로슬라브 볼프,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250.

2) 위의 책, 250.

3) 위의 책, 251.

4) 위의 책, 252.

5) 위의 책, 253.

6) 위의 책, 260.

7) 위의 책, 254.

8) 위의 책, 254.

주'로 동생을 바라봅니다. 큰아들은 도덕적 범주(moral categories)를 사용해 '선과 악'의 행동이라는 축(the axis of "bad/good" behaviour)에 따라 동생을 인식한 것입니다.¹⁰⁾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은 서로를 문제시하며 탕자로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도덕적 관점으로만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신은 의롭고 상대는 악마'라는 태도를 계속 축적해 왔습니다.¹¹⁾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관계적 관점'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코리안디아스포라교회가 북한 사람들을 탕자로 가정한다면, 그들을 큰아들의 관점에서 바라볼지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볼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북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북한 사람들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9) 위의 책, 254.

10) 위의 책, 256.

11) 위의 책, 257.